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8월의 선교사(추기성)를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찬 356)

그의 생각

나의 피난처 예수

기름부으심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7:16-21

그의 빛 안에살면

“길 밖의 길”

주 믿는 사람 일어나(찬 357)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8월의 선교사는 추기성 선교사(멕시코 과달라하라)입니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에 중고등부 PTA(The Parent Teacher Association)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 유초등부 예배당 맞은편 교실입니다.
4. 알콜솜과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지난 7월 29일(목) 이종혁, 윤주연 성도 가정에 딸 에블린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오던 태주명 태경숙 성도 가정이 오는 8월 15일(주일)에 한국으로 영구이주합니다. 따뜻한 인사로 환송하시기 바랍니다.
7. 7/24(토)부터 9/4(토)까지 7주간 2021 Back to school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의 기도로 서포트 받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 7월 11(주일) - 8월 15일(주일)까지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친교실에서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된 자부심

태주명, 태경숙 성도 가정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합니다. 은퇴 후 뉴저지에서 생활하던 두 분이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8월 15일 이주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 참석입니다. 섭섭하지만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또한 이종혁, 윤주연 성도 가정에 7월 29일 에블린(딸) 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에블린이 그 가정의 사랑스런 딸이자 한울림교회의 귀한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비드 상황이 쉽게 물러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코비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률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변이 바이러스 탓도 있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또한 백신을 맞았다고 경계심이 풀어진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과 손소독제를 사용을 철저히 하면서 경계심을 풀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새벽기도회를 '목금토'는 대면모임으로 전환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일예배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성경공부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훈련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적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장 모임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호로만 그치던 "영혼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다리며 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자부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